

갈대상자 소식지

한동인

김영길 총장님의 마지막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

장순홍 총장님의 첫 인사

Why not change the world?

상담심리학과 카페의 만남 '토닥토닥'

태국에서 사랑을 전하는 김은총 동문

한동소식

'사막엔딩'팀 LG글로벌챌린저 대상 수상

연구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는 한동인

함께 엮는 갈대상자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冬' 프로젝트

첫열매 기부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CONTENTS

한동인

- 06 김영길 총장님의 마지막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
- 09 장순흥 총장님의 첫 인사
- 12 한동의 역사를 담은 '갈대상자'를 읽고 번역하기까지
- 15 한동안에서 시작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 18 들리지 않아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 20 성현모 교수님 팀의 아름다운 섬김

Why not change the world?

- 24 아이들이 변화될 때 가장 기쁘죠
- 27 제가 익힌 전공을 통해 지역민들을 돌보며 위로하고 싶어요
- 3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 32 변화된 어린아이가 변화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 35 소통이 고된 이형일 PD와 소통하다

한동소식

- 40 무너진 사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회복의 희망가!
- 42 연구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는 한동인
- 44 하나를 위한 한동, 한동을 위한 하나 옥선포원
- 46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 비전에 기반한 진로 개발
- 48 나, 너,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G-IMPACT

함께 엮는 갈대상자

- 52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
- 54 내가 받은 사랑과 배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 56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무

갈대상자 소식지 2014년 제45호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갈대상자 소식지 전자우편: sarang@handong.edu

글_ 성연태, 이영건, 이해정, 김민서, 임하영

사진_ 한동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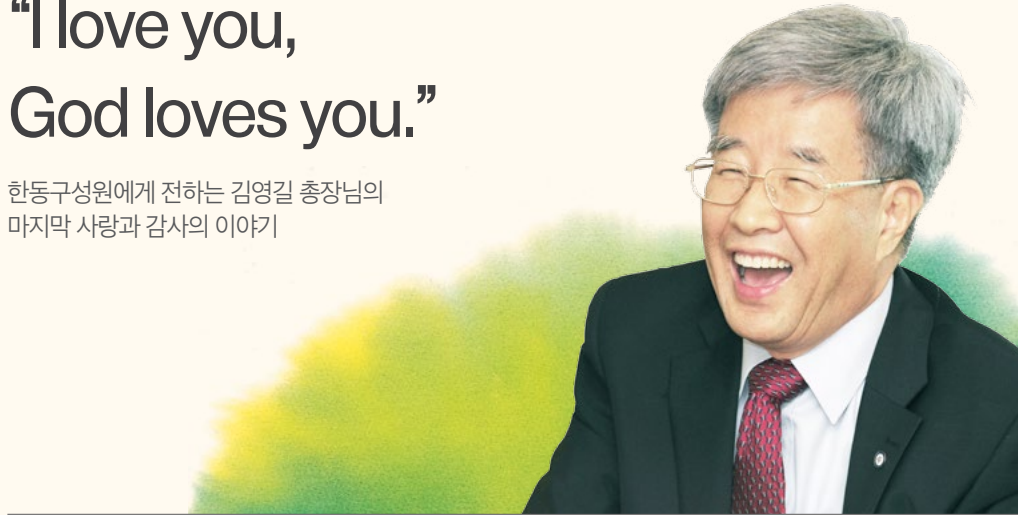
한동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동인의 삶을 엿보는 공간.
이번에는 어떤 한동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I love you, God loves you."

한동구성원에게 전하는 김영길 총장님의
마지막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



얼마 전 총장님 퇴임을 기념으로 학생들이 다 함께 준비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We love you, God loves you>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준비에 들어간 이번 행사는 개설 3일 만에 '좋아요' 1500개를 돌파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4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여 총장님과 함께 한 사진 촬영, 감사의 메시지 책자 전달, 총장님을 위한 중보기도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각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속 간직한 채,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김영길 총장님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하나님의 대학을 꿈꾸며

지금까지 한동대에 계셨던 소감을 묻는 첫 질문에 총장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19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으며, 그동안 학교를 운영

해가면서 어려움과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동이 갖춰지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 쓰신 <신트로피 드라마>를 언급하시며 특히 한동이 지켜야 할 가치로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꼽으셨습니다.

"신트로피(Syntropy)란 엔트로피(Entropy)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질세계와는 달리 생명체에서는 무질서 상태에서 오히려 질서도가 증가해 질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죄라는 인간의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감으로써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동을 통해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테를 보수하는 신트로피의 드라마를 써가는 21세기의 노헤미아와 같은 지



도가 계속해서 배출될 것을 기도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동을 돕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 Academic Impact, UNAI)에서는 우리학교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생긴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 협의회에서 김영길 총장님은 현재 초대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 UNITWIN) 주관 대학이기도 합니다. 총장님은 퇴임 후에도 이러한 UNAI, UNESCO UNITWIN, 월드뱅크(World Bank)등의 세계적인 기관과 협력,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한동대학교와 차기 총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삶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신트로피 드라마 운동을 펼칠 계획을 함께 밝히셨습니다.



"한동이라는 무대가 신트로피의 수원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생명수가 식탁한 세상 곳곳을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동대학교 후원자분들을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지만 이제 직접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워서 남주자'의 정신을 실천하자며 학생들에게 대 총장님의 마지막 당부는 한결같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연구와 전인교육을 통해 성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직원 분들께도 행정적 원활제 역할을 담당하길 당부했습니다.

"생각과 사상을 바꾸면 꿈과 목표가 달라지는 걸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한동에서 훈련된 학생과 동문들은 '중력의 법칙(세속적 삶)'이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를 중심에 둔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더 크게 작동할 때 세상은 변화되지만, 은혜의 법칙은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살과 같아 반대저항과 유혹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희생이 요구됩니다. 한동과 한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은혜의 법칙을 더욱 따르고 섬기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은 특별히 한 분께도 진심 어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후임 총장으로 오실 장순홍 총장님이었습니다.

“후임 총장님이 학교의 정관 제1조를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등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찾아가서 어깨도 좀 주물러 주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기를 뛰어넘는 기회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가 되며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기독교 정신이 유지되고 진정한 예배가 이뤄지며 21세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자라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동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난다는 김영길 총장님. 한평생 강조하신 전인교육과 배워서 남 주자는 김영길 총장님의 말은 이제 한동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19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말을 총장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We love you, God loves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동인

장순홍 총장님의 첫 인사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신임 총장님은 “부족하지만 이번에 김영길 총장님에 이어 신임 총장을 맡게 된 장순홍입니다.”로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처음 한동대에 기부후원회를 제안하셨던 장순홍 총장님은 개교 초기부터 한동대와 깊은 인연을 맺어 오셨는데요. 갈대상자를 통해 전하는 첫 인사를 시작합니다.

총장직을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동대를 사랑하고 오래전부터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날엔 사회와 대학이 처한 위기상황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기독교를 떠나고, 고교 졸업자 수와 대학 입학정원의 역전 현상이 예고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총장직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던 중, 저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을까 싶어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

원하게 됐습니다.

총장으로 선임되신 소감이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굉장히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앞서고, 지난 20년간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써 성장했듯이,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동을 오랫동안 보시면서 인상 깊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을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 학생, 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동문, 교계에서도 한동대에 엄청난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동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선 각 구성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이나 구상이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먼저 현황 분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라는 것은 지역과 대한민국과 세계가 꼭 필요한 대학,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지식을 많이 생산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전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도를 하려면 신앙과 삶의 연결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전하고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봅니다.



떠나시는 김영길 총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한동대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건 김영길 총장님의 엄청난 수고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퇴임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수고를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동대를 후원하시는 것에 앞장서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동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각자의 달란트를 키우고 남을 돕도록 할 수 있는 게 교육철학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조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분들과 학부모님, 동문들께는, 한동대학교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배출시킬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기도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동의 역사를 담은 '갈대상자'를 읽고 번역하기까지

일본어로 갈대상자를 펴낸 주인공, 하라다 마사오 교수님



한동대에는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한동의 생생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갈대상자'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셨던 글로벌리더십학부의 하라다 마사오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한동까지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할 나이가 다가왔을 때, 앞날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 목사님께 한동대학교를 소개받고 기도하던 와중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한동대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상자를 일본어로 번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동대에 대해 잘 모를 때, 제 아내가 갈대상자를 설명해주고 함께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번역해볼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동대에 온 후 첫 교수 수련회에서 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제가 갈대상자를 번역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번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직접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려웠던 점은 기독교 용어들이었어요. 저는 크리스천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을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번역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아내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갈대상자를 번역하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번역을 하면서 한동대학교가 개교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갈대상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생생한 한동의 현장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제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누워서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힘이 들긴 했죠.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 먹어라’ 하고 제공해주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걸 느꼈을 때 감격이었습니다. 갈대상자 책을 읽고 그 감동으로 시작한 일인데,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번역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대상자를 읽고 난 그 힘과 기운을 받아 했으니 어려웠지만,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 오셔서 뿌듯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일본어 수업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후 계속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한동안에서 시작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명예제도를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들 -한동명예제도위원회



점이나,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결혼식 기도를 부탁하는 점 모두 감동입니다. 또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나 비전광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도 많이 감동하고 격려받는 기분이예요. 학생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한동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한동대가 글로벌 대학이잖아요, 각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믿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여러 모양,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거잖아요. 천국도 비전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천국을 느끼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 등에서부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한 한동의 고유한 문화인 명예제도. 이러한 명예제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알리는 한동명예제도위원회(이하 명예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학생회관 2층 명제위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주간의 첫 하루를 돌아보고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서로 의논하는 모습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명제위는 한동 안에 있는 명예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학생 자치 단체로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 아래 학생들에게 더욱더 명예제도를 인식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제위는 95년도 개교 당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기존에 이미 존재해온 규정 형식의 명예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한 번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한동 안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사람들의 행동양식, 생활규범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의 명제위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명제위는 열두 명으로 구성되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주로 이번 학기 명예제도를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를 기획하며, 진행상황을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주일에는 함께 모여 명예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명제위는 한동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명예서약식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외국인 학생에 대한 명예서약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기에 한 번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바른 삶 속에서 잇기 쉬운 명예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명예제도가 각 항목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



긴 상황까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상황과 문화에 맞춰 해석이 가능한 한동대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한동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선정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제도에 대해 명제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명예제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경준(법 07) 학우는 “명예제도가 제도라는 단어 때문에 딱딱하고 규율적으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명예제도는 한동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학생들이 서로서로 명예제도에 담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캠퍼스 안팎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며 그 의미를 전합니다.

장도희(GLS 13)학우는 올해 새로이 명제위에 들

어온 새내기지만 그 마음만은 선배 못지않습니다. “저는 명예제도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성공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 도전하고 실천하는 힘인 것이지요.”

우리가 한동에서 누려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문화들은 서로를 위해 조금 더 배려하고 희생하고자 했던 선배들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더욱더 지켜나가 한동대학교가 세월이 지나 우리 자녀들까지도 오고 싶은 그런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명예제도위원회. 이런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또다시 도약하고 변화되는 한동을 기대해 봅니다.



들리지 않아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딛고 한동을 졸업하는 이채문 학우를 만나다.



한동대에서 최초로 청각장애를 지닌 채 입학했던 이채문 학우(경영경제 09)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작년 말에 9급 전산직 공무원에 합격했는데요.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대학교에 다니며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 그는 공무원시험에까지 합격하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한결같이 말하곤 합니다. “채문이를 보면서 제가 더 배웠어요”.

한동대에 어떻게 오게 됐나요?

고등학교 시절 한동대 홍보동아리 나누미가 우리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인 저로서는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감동하였고 이는 제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각장애를 지녔지만,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싶어 대안학생 전형으로 합격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때 여러 힘든 점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전공을 컴퓨터 공학으로 지

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공학 인증신청을 하고 컴퓨터에 관한 과목을 수강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아무 도움 없이 수업을 들으니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죠. 결국,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전공 관련 수업의 점수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가 시작하면서 한동교육개발센터(HEDC)에서 장애학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갈 때 대필도우미를 지원해주었어요. 도우미가 수업의 내용을 노트북에 적어주어 교수님의 수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필 도움으로,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학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감도 많이 붙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4학년 1학기에 전산필수과목 중 인터넷 활용과 프로그래밍 입문을 들었습니다. 수업도 매우 재미있었고 이 수업을 통해 저의 적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산 쪽으로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고 전산직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 생활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지루함도 크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공무원이 되는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하며 동기부여를 했고, 밖에 나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등 나름의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각장애 때문에 나라로부터 장애연금, 장애

장학금 등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많은 배려 역시 물론이고요. 수많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로 지금까지의 학창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자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기본을 중요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워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고 쉬운 것을 경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가 체계적으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4학년 초에,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업에 관련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공부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채문 학우를 한동교육개발센터(HEDC)에서 ‘첫 열매’라 부른다고 합니다. 센터의 권애경 선생님은 “저는 채문이를 통해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청각장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항상 열심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오히려 채문이를 만나 제가 더 감사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청각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의 삶의 원동력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성현모 교수님 팀의 아름다운 섬김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체육대회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잦아들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 날, 캠퍼스에는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보물찾기를 하며 뛰어다니는 한동인들이 있었는데요. 대체 무엇 때문에 한동대 학생들이 청소년들과 체육대회를 했던 것일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체육대회의 주인공 '2013 성현모 교수님 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체육대회!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참여해주고 즐거워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라며 이예지 학우(GLS 13)는 성공적인 체육대회에 대해 먼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민우 학우(국제 09)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팀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준비하다 보니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한 일을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함께 느끼고 나눈 순간

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라고 팀원들의 협동과 섬김을 통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고 걱정되지만 했던 청소년들과의 체육대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현재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양준호 학우(기계 12)는 “방학 때 신강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봉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동대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아이들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한 학우님이 “소외된 이웃에게 못 누려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다리놓음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을 한동대에 불러 체육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당시 일을 회상했습니다.

팀원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려고, 매일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체육대회. 보물찾



기와 이어달리기를 통해 마음껏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단체줄넘기를 하면서는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체육대회가 아이들뿐 아니라 팀원들의 마음 또한 ‘힐링’ 시켜준 것 같습니다.

성현모 교수님 팀에게 섬김이란?

그렇다면 2013 성현모 교수님 팀에게 ‘섬김’은 어떤 의미일까요? 팀원들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힘들다는 것을 예상하며 섬김을 시작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가 한 단계 성장하게 도와주는 디딤돌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할까?’라는 기대를요” (양준호 기계 12)

“저에게 섬김이란? 마치 페이스북 같은 존재예요.(웃음) 중독성 있잖아요. 끊을 수 없고, 계속 하고 싶고 한번 시작하면 헤어날 수 없어요.” (정상혁 GLS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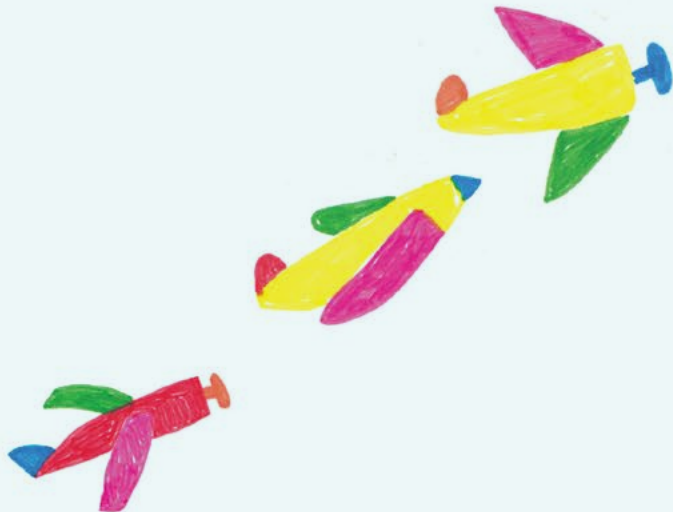
“정의하기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섬긴다는 게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조금 섭섭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문제로 고민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섬김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아픈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되돌아보면 섬김은 저한테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줬어요.” (강민우 국제 09)

“배려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선배들이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거든요. 항상 새내기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주시는 것을 보고, 나도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예지 GLS 13)

지금까지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2013 성현모 교수님 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의 ‘섬김’에 대한 열정과 깨달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팀원과 이웃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한동에 모였습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아이들이 변화될 때 가장 기쁘죠”

신한나 동문의 미국 고등학교 정교사가 되기까지의 삶



우연히 한동대를 만나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까지, 신한나(생명과학 07)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신한나 동문은 9년 넘게 거주하던 영국에서 의대준비로 고군분투하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가족이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갈대상자에 쓰여져 있던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생명과학부’라는 문구에 이끌려 한동대에 입학하였는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늘 가족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신앙의 배움터이자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의 가장 첫 번째 꿈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재학 중 휴학을 하고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재미도 느꼈고, 많이 배웠지만, 회사에 다니면서는 내가 그려왔던 아름다운 가정의 부모, 아내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웃음)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된 계기가 듣고 싶어요.

미국에 와서 1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점점 열정이 생기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진로를 두고 고민하던 중 난생처음으로 남들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도 받았습니다. 졸업하기 한 1주일 전쯤 기도하던 중에 제가 교생실습을 하면서 돌보게 된 한 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학습장애인이었고, 읽기조차

도 잘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나야 내가 이걸 원한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맡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해” 그 음성을 듣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취직도 안 된 상태였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 부르심을 받은 1주일 후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한 후의 생활과 준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1년 8월에 졸업한 후 한동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레투너 대학교에 개설된 교직 과목을 3학기 동안 이수하고 텍사스주 롱뷰시스프링힐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교생실습 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서 지난 1월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월부터 지금의 메스키토티에 있는 존혼 공립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교장 선생님께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셨고, 이를 취득 후 추후 면접을 통해 지금은 정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특수교육, 수학, 과학 교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후배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관심이 있다면 차근차근 준비하여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밑바닥을 달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께도 협조를 부탁하면서 튜터링 한 이후에 그 학생의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학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숙제도 물어보고 자신의 성적을 항상 체크합니다. 아직은 제 수업만 패스하고 있지만 다른 수업들도 열심히 하게끔 격려하는 중이에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스스로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식과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 안전하게 성장하고 세계관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통로예요. 많은 친구들, 선후배, 교수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해놓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언제 주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해할 필요 없이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Why not Change the World?

“제가 익힌 전공을 통해 지역민들을 돌보며 위로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협동조합 이영희 동문



사람을 치유하는 카페? 얼핏 듣기엔 맛있는 커피가 주는 만족감을 치유에 비유한 듯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사와 바리스타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동대 언론정보학과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토닥토닥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희 동문이 있습니다.



토닥토닥은 어떤 곳인가요?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심리상담사들과 바리스타들이 모여 지역민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 기관입니다. 값싸고 질 높은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전 생애를 돌보고 싶어요. 앞으로 꿈꾸는 것은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그들 안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또 내담자였던 분들이 상담을 받고 감사했던 만큼 그들 또한 타인들에게 헌신하면서 지역민들이 서로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비행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맛있는 걸 원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맛있었던 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서 영화 한 편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영화 외에도 연극, 사진치료, 드라마치료, 또 푸드 치료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작곡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 배웠던 것들을 상담에 접목할 수 있는 건 한동대학교의 연계전공제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성인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에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또 저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제일 힘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게 맡기신 영혼의 대상자가 청소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정했던 게 있었습니다. 항상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때는 PD를 꿈꿨었고, 한때는 기자를, 또 광고인을..... 이렇게 직업은 달라져 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절 보내실 수도 있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삶에 부합하게 사는 게 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 동문에게 한동대란?

저는 한동대에서 '갈지 않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사회인데, 한동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삶에 맞게끔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스펙을 굉장히 추구했고, 그것에 만족하는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면서 당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설사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자신이 가장 일치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는 사람들이 늘 후회를 하지만 해본 것에는 후회하지 않는 것 같더라 늘 용기를 내라고 전하는 이영희 동문. 타인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인터뷰 내내 기자에게도 와 닿았습니다. 이영희 동문의 토닥토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태국에서 사랑을 전하는 김은총 동문



지난 10월 16일 특별한 손님이 한동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Everybody is Missionary of Christ)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EMC팀은 태국에서 온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은 채플에 참석한 학우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며 태국에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김은총(상담심리 05) 동문의 사역을 들어보았습니다.

2011년 말에 선교사로 파송된 김은총 동문은 현재 태국에서 오케스트라 지도와 함께 학생부 및 청년부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만 시작했던 문화센터가 지금은 여러 청년들의 자원으로 인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사역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로 태국에서 자란 김은총 동문은 스스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후 처음 사역지를 부모님이 계신 태국으로 배정받았는데, 첫 사역을 동역자로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합니다.

김은총 동문에게 선교 사역에 대해서 묻자 특히나 태국은 교육, 문화, 정치 등의 많은 부분에서 불교의 뿌리가 깊다는 말을 전합니다. 태국의 기독교 역사는 186년이지만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기존 종교와 사회 풍속에 동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현장과 그 나라의 실체를 보고 체험하는 경험이라 생각한 부모님이 그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한국 교회의 순교와 부흥의 현장 등을 체험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은총 동문과 EMC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런 현장체험순례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을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고 기도로 준비한 학생들은 국제성서박물관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모지 방문을 시작으로 충신대학원 및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기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교회를 방문해 선교의 밤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문화거리 노방전도와 공단 방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놓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3번째 한국 방문에서는 2번째 방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리더로 참여하여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데요. 김은총 동문이 한동에서 받은 배움이 다시 열방에 퍼지듯, 이번에 자라난 리더들이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교사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변화된 어린아이가 변화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컴패션 경영지원실 95학번 정성인 동문 이야기



변화된 사람이 지역 사회도 변화시킨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26개 나라의 극빈층 아이들을 선별, 후원자와 1:1 결연을 맺어주는 NGO '컴패션'. 컴패션을 통해 결연을 맺은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후원을 받은 후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빈곤을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토록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컴패션 한국 지부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정신을 몸소 실현하는 한동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95학번 정성인 동문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5학번 정성인입니다. 저는 95년에 기계금속공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했고, 99년 2월 제1

회 졸업식 때, 단둥인 학부 졸업생 중에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컴패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경영지원실 재경팀 소속으로 경영관리 업무를 합니다. 한국컴패션은 올해로 열 살을 맞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는 일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내부 진단 프로그램, 관공서를 비롯한 외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응대, 구매와 관련한 일부 프로세스 구축, 사내 그룹웨어 도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도 하고 있네요.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년 2월, 필리핀 마닐라의 수혜 어린이들을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만남은, 아동 성매매가 횡행하고 극빈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가정의 방문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집은, 제 방보다 작은 규모의 반지하가 구였는데 8명이 살아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 수 없어서 아이 아빠는 방 밖에서 잔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가 눈빛이 전혀 기죽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로는 그 아이는 컴패션에서 교육을 받은 결과, 자존감이 잘 형성되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 한 명이 잘 성장하면, 그 아이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의 가정도 바뀔 겁니다.

그 앞집에는 남자아이 4명을 키우는 부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규모의 집인데, 특

이하게 1층 높이의 집을 2층으로 만들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 부분이 나무를 엮어 층을 만든 것이라 무척 불안했죠. 역시나 여기도 아빠는 밖에서 자더군요. 이곳에선 2명의 아이가 컴패션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아이들의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환경에 의한 억눌림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 가정도 아이 2명에 의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의 변화는 아동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동네를 변화시키고 마닐라를, 더 나아가 필리핀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컴패션이 60년 동안 수혜국에서 해온 일이고, 그 열매들이 수혜국의 발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역사가 증명해 왔기 때문에, 필리핀 역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나눠주세요.

제가 잘하는 일 중의 하나가 참모 역할입니다. 제 경우엔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에 크게 이바지하는 셈이죠. 참모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조직의 틀을 잡고 관리를 하는 역할의 참모가 제게 가장 잘 부합합니다.

이를 통해 바라는 것은 제가 일하는 조직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조직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들 말하는 신앙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우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기독교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세상적이다라는 판단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알고 세상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축복 통로가 되시길 당부합니다.

항상 청년답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라고 당부하는 정성인 동문. 마틴 루터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 일벌레가 되어야 했을 것이라며 웃는 그의 모습에선 따뜻한 유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성인 동문과 한국컴패션 을 통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통이 고픈 이형일 PD와 소통하다.

KBS 대구 이형일 PD의 주옥같은 이야기



지난 10월, 가을이 오려는 좋은 날에 한동대 97학번 졸업생, KBS 대구 이형일 PD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형일 동문과의 만남 속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했는데요. 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면 '소통'이라는 주제는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소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78년도 서울에 태어나서 평생 서울에서 살 줄 알았다가 지방에 눌러앉은 이형일 PD라고 합니다. (웃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셨나요?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대부분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든 다큐멘

터리 제목이 '동화방정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거기서도 '소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읽어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 사회와 사람과의 소통, 기득권자와 기층민중의 소통, 문화와 사람 간의 소통 등에 대한 거죠.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뚫릴 수 있을 거다, 소통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소통할 수 있

도록 직접적으로 연결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생각만 바꾸면, 당신이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그 세상과 당신은 연결되어 있고, 당신이 전혀 무시하고 싶은, 싫은 그 대상과도 당신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연결된 것과의 소통 안에서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제가 제일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들이었기에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이형일 동문에게 한동대학교란?

한동대는 내가 믿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하나인 곳입니다. 한동대는 이 간격을 굉장히 좁히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왜 '소통'이 저의 키워드겠어요?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모두가 연결된 상태로 놓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것을 믿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으로 모두가 연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소통'이 저의 키워드인 거죠. '내가 믿는 것'과 '배운 것'을 하나로 가르치는 곳이 한동대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르치는 것은 한동대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것은 직장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배우게 하고, 말하게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해하지 마세요. 빠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빠르게 얻어낸 것들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서 얻은 것은 정말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물론,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 무엇인가가 자신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면서 기다리세요. 인생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얻어야 할지 아는 것부터 하세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게 뭘지 잘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모르니깐 무슨 일을 하든 맘에 안 들고, 맘에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맞는 건지조차 모르는 거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일동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운 것을 믿음 대로 실천하는 그는 '소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통이 고된 이형일 PD! 앞으로도 그가 세상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고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동 소식

“한동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사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회복의 희망가!

‘사막엔딩’팀 LG글로벌 챌린저 대상 수상

“한동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가 사막화 해결을 위한 희망의 열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동대 재학생들이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글로벌 챌린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주예(공간시스템 08), 조운제(공간시스템 11), 박경원(산업디자인 11), 방성제(경영경제 07)학우로 구성된 ‘사막엔딩’팀은 “사막의 회복을 위한 치료법, 미생물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을 탐방하고 박테리아를 이용한 사막화 방지 기술과 한국형 사막화 방지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참신한 주제와 구체적인 향후 실행 방향성, 성실한 탐방활동 수행 등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막엔딩’팀 구성원들은 각자의 전공이 모두 다르지만, 오히려 서로 다른 전공에서 발휘되는 역량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접근방식을 발전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기도와 사랑,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이번 탐방을 끝까지 해왔다고 구성원들 모두 입을 모아 전했습니다. 팀원인 김주예 학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했기에 협력을 이루고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LG글로벌 챌린저는 1995년 시작된 국내 최초, 최장수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여러 대학생 팀들에게 방학 2주 동안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 등을 탐방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상을 수상한 6개팀에게는 LG입사 및 인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2000년, 최초 출전 이후 작년까지 총 11팀이 LG 글로벌 챌린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2000년 우수상, 2002년과 2004년에 특별상, 2007년과 2008년 최우수상, 2009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3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4년 만에 다시금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연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가는 한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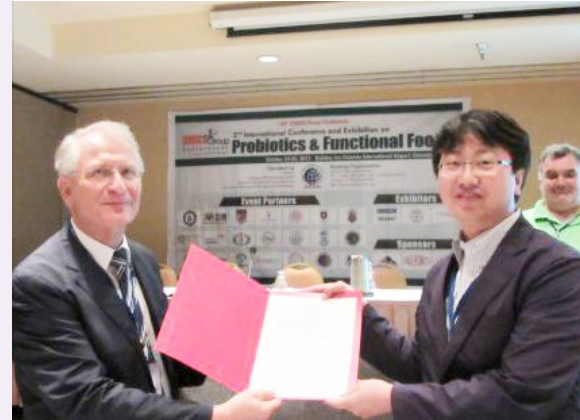
오믹스학회 젊은과학자상과 포스터우수상을 수상한 지요셉, 박현준 박사과정생

교육 중심 대학을 표방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실무형 인재를 길러온 한동대, 하지만 연구와 학문에 있어서도 어디에 뒤처지지 않는데요. 지난 10월 한동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동대 대학원 첨단그린에너지환경학과 홀짜펠(Wilhelm Holzapfel) 교수와 생명과학부 신현길 교수 연구실의 지요셉, 박현준 박사과정생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2회 유산균 및 기능성식품 분야 오믹스학회(OMICS group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 on Probiotics & Functional Foods)에서 각각 젊은 과학자상(1등, Young Scientist Challenge Trophy)과 포스터 우수상(2등, Young scientist poster Award)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수상은 특히 전 세계 박사들과 경쟁하여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한동대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고 전세계 과학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수준임을 증명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번 오믹스학회에서 지요셉 박사과정생은 식품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실험쥐에 장기 투여한 결과 소화기관 내의 장내균총과 짧은 탄화수소 사슬 지방산의 구성이 변하므로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결과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요셉 박사과정생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프로바이오틱스 국제학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Probiotics and Prebiotics)에서도 2년 연속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내 우수한 박사연구원을 선발하여 학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프로그램인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려고 매번 상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지요셉 박사과정생은 특히나 연구 분야가 취약했던 한동대학교를 높이시므로써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해주신 홀짜펠, 신현길 교수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스스로의 욕심이나 세상의 판단, 잣대, 평가라는 두려움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며 연구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요셉 박사과정생은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의학전문대학원만이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학부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연구와 같은 다양한 길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터 우수상을 수상한 박현준 박사과정생은 미생물이 발현하는 정족수 감지신호로 장 출혈성 대장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2년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병원성균으로 당시 1000여명이 감염됐고,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식품미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현준 박사과정생은 “현재 맡은 일과 연구에 전념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식품의 미생물 안정성과 저장성 등에 연관하여 식품 품질 및 식량 자원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꿈을 전했습니다.

지요셉 박사과정생은 학교 느헤미야 홀 정문 현판에 걸려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라는 말씀을 마주칠 때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큰 의미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오묘함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모든 한동인을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공통 목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실현해가는 한동대를 위해 기도한다는 두 박사과정생. 바쁜 생활 중에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생활하는 두 사람은 한동인들에게 “각자의 생각과 고민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동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자신들의 연구가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지식을 탐구하는 열정과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를 위한 한동, 한동을 위한 하나 옥선포원

임찬양 학우를 위한 따뜻한 손길들이 모이다



병상에 누워있는 임찬양 학우를 위한 경매프로젝트 옥선포원이 11월 29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오석관 303호)에서 열렸습니다.

옥선포원은 한동대학교 Global Edison Academy(-GEA) 학부 서은성(생명과학/GEA 08), 안수찬(경영경제/GEA 08), 윤하지(산업정보디자인/GEA 08), 주환(경영경제/GEA 09)학우가 비즈니스 프랙티컴(Business Practicum) 수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경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교수님들과 졸업동문들의 애장품을 기증받은 후, 경매를 통한 수익금을 1년째 투병 중인 임찬양 학우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비즈니스프랙티컴 수업에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한동이 하나 되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보통 만두를 팔거나 고구마를 팔거나 하는데 일이 학생들끼리에게서만 이루어지니깐 규모가 작아진 것 같아서 학부모, 학생들, 교수님

을 다 이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1년째 투병 중인 임찬양 학우를 생각하며 이번 일의 수익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많은 재학생들이 전시, MC, 영어 번역, 광고노래 녹음 등을 재능기부 해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매 물품으로는 김영길 총장님을 비롯한 28명의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애장품을 기증해주셨고, 이외에도 한동대 졸업 동문 2명과 한동대 재학생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기증해주었습니다. 기증 물품은 장식품, 카메라, 재봉틀, 옷, 화장품, 가구, 가방, 책, ‘교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시간’ 등으로 풍성하고 다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수님들께 다 이메일을 보내고 물품을 받으러 다녔는데, 적은 인원이 백 정도 의 교수님들께 물품을 받으러 다니기가 참 힘들었



었어요. 꽤 오래 걸렸었죠. 프로젝트 소식을 듣거나, 저희가 사이트에 기증받은 물건을 올리는 걸 보고는 먼저 연락을 주시는 교수님들도 많았습니다.”

옥선포원 팀은 오프라인 경매가 열리기 2~3주 전부터 웹사이트를 열어 경매 물품을 올리기 시작했고, 29일 온라인 오프라인 경매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매를 진행했는데, 경매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활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임찬양 학우를 위해 먼저 연락 주시고 애장품을 보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행하면서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학부모님들도 많은 격

려를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감동도 받고 정말 많이 뿌듯했죠”

향후 옥선포원은 ‘남송리3번가’라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발전될 계획에 있습니다. 옥선포원 자체가 물건을 기부받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옥선포원을 함께 했던 멤버들이 ‘남송리 3번가’라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만들어, 재학생, 졸업생, 교수진,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한동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밖 한동인들은 한동 안의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동 내 행사, 공연, 학회, 단기선교팀 등의 소식을 모든 구성원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 비전에 기반한 진로 개발

‘비전기반 진로개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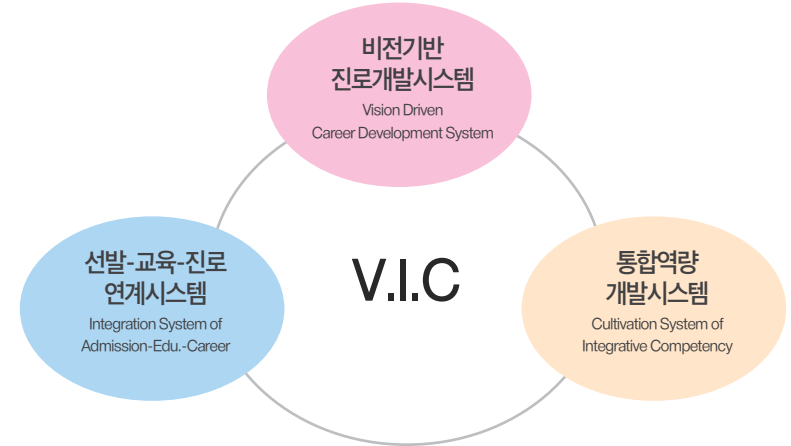


한동의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고민하는 전공, 그리고 꿈과 비전. 이를 돕기 위해 한동대학교가 나섰습니다. 바로 비전기반 진로개발시스템(V.I.C)인데요. 오늘날 창의시대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개발하여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비전기반 진로개발시스템은 비전기반시스템(Vision Driven System), 선발교육진로 연계시스템(Integration System), 통합역량 개발시스템(Cultivating System)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창의성 계발을 위해 3S(Style, Story, Schedule)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자기 탐구를 통해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삶의 비전을 수립하여 전공과 진로를 개발,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개교 때부터 국내 최초 무전공무학부 제도를 도입하고 학부 간 복수전공을 도입한 바 있는 한동대. 이러한 한동대의 신입생들은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전공을 정하기 때문에 진로개발시스템은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 글로벌 역량, 동

비전기반 진로개발시스템 Vision Driven Career Development System



기, 잠재력 등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 한동대의 특성상 이번 진로개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인의 통합역량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로개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동대는 진로개발시스템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적성검사, 상담 및 교육개발 등을 제공하며 학업뿐 아니라 공모전, 봉사활동, 외국어, IT 실무능력 등의 통합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졸업한 선배들이 분야별 진로 상담가로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Do Dream)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개발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 제양규 입학인재개발처장은 “단순 나열된 스펙과 이를 연결한 스토리를 뛰어넘어, 목적을 가진 비전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 발전시키고 공부해 나갈 수 있게 할 계획”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예비 대학 과정에서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과 꿈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 너,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G-IMPACT

2013년도 사랑을 더하는 G-IMPACT 캠프!



한동의 유난히도 더운 여름날, 옛된 얼굴들이 찾아와 하나 둘씩 한동을 채웁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을 보이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신이 속한 조의 친구들과 재학생 도우미와 함께 한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일정이 끊이지 않아 이들의 웃음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G-impact 캠프입니다!

2010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G-impact 캠프! G-impact 캠프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육의 접근성을 높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이를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한동만의 가치, 정신, 인재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려는 취지의 캠프입니다. 이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한동대 재학생들의 귀한 손길들이 모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3 G-impact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LOVE ONE ANOTHER)'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2박 3일의 이 캠프는 DAY 1에서 DAY 3까지 여



러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집니다. DAY 1에선 11개 학부 교수님들의 지성과 영성 특강, 자신의 적성 및 성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 한동대 재학생과의 나눔 등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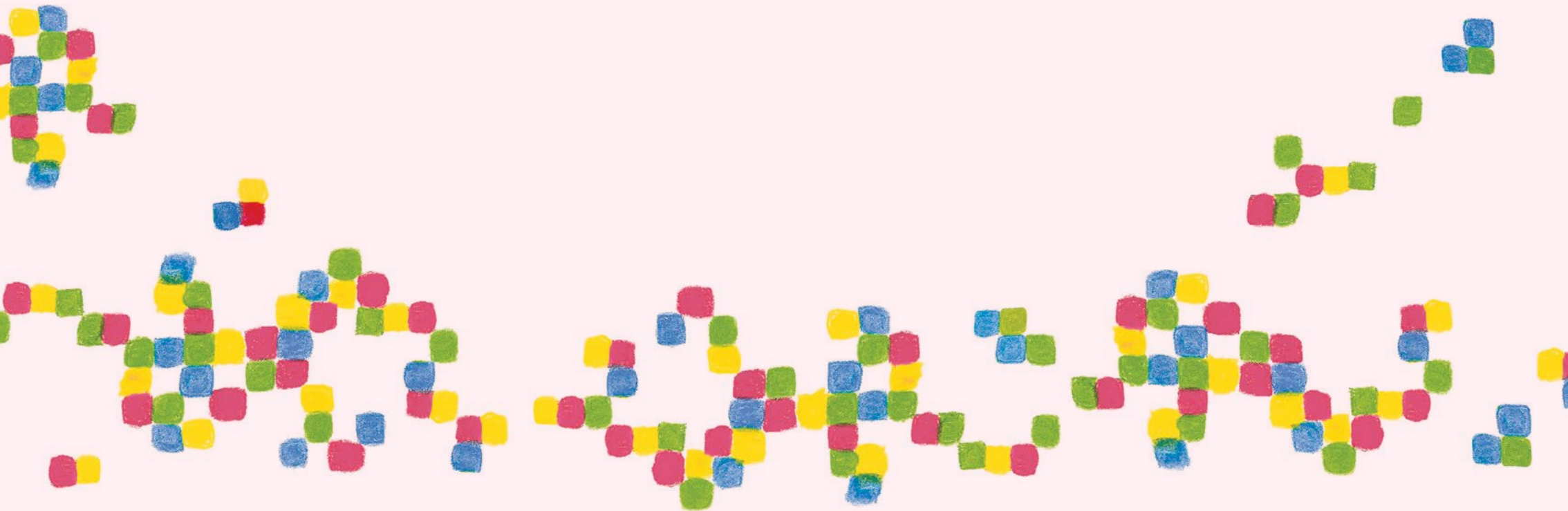
DAY 2에서는 자아탐색을 통해 적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미션을 통해 같은 조 친구들과 간 협동심과 그 안에서의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AY 3에선 한동 출신의 졸업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전하는 졸업생 특강을 가진 뒤 캠프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 캠프의 재학생 도우미였던 이현경 학우(GLS 13)는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한동에서 받은 사랑을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꿈꾸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캠프의 참가자였던 김진민 학생(포항여자고등학교)은 "G-impact 체험활동을 통해 저의 진로에 뚜렷한 비전을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면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이었지만 도우미 언니, 오빠들을 통해 한동의 열정적인 모습과 순수한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라며 떠나는 아쉬움과 함께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방문한 고등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재학생 도우미들의 모습은 보는 이마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한 재학생들의 노력이 담겨있어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G-IMPACT 캠프'라는 감동스런 한동의 전통이 계속하여 흘러내려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연
모든
갈대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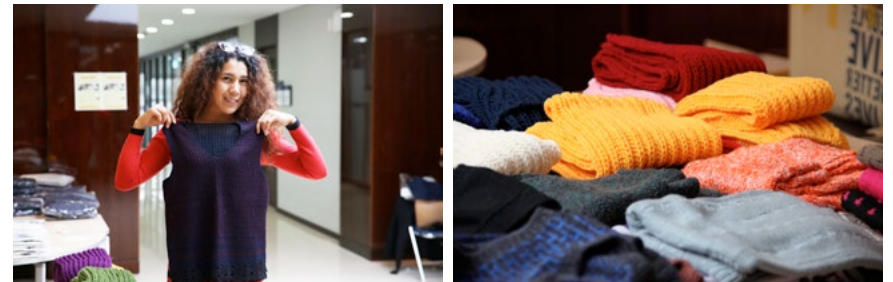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랑의 캠페인 <따뜻한冬> 열려



유난히 추워진 올해 겨울이지만 사랑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할 수는 없는 법! 한동대에서 추위를 녹이는 마음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동을 사랑하는 후원자분들과 함께 외국인 학우들을 돕는 사랑의 캠페인 '따뜻한冬'과 한 할머니의 편지로 시작된 뜨개질 옷 나눔 행사가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성공리에 열렸습니다.

현재 한동대에는 32개국에서 온 123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배워서 남 주자”는 모토 아래 저개발국에 대한 교육공여를 중시하는 한동대에는 특히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겨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난히 더 추워진 올해 날씨에 가을부터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한동대는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따뜻



한冬' 행사를 열어 한동집업후드와 티셔츠를 나눔으로써 체온과 마음 온도를 함께 올리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에게는 후원자분들의 카드를, 후원자분들에게는 전달받은 학생들의 사진과 편지를 함께 전함으로써 학생과 후원자 간의 마음 또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81살을 맞이하신 오순향 할머니는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한동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춥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뜨개질한 목도리와 조끼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학교는 이렇게 받은 목도리와 조끼를 '따뜻한冬' 행사 옷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팔에서 온 Sushil 학우는 “따뜻한 선물을 받아 너무나 감격스럽고, 외국인 학생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손길들 덕분에 한동을 찾은 학생들의 체온과 마음 온도가 함께 올라가는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한동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배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간 한동인의 첫 열매 기부

95학번 윤석재 동문을 시작으로 사회에 나간 동문들이 자신들의 첫 월급을 하나님과 모교에 전하는 첫 열매 기부는 지금도 많은 한동 졸업생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한동을 졸업해 세상으로 나간 25명의 동문들에게서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 중 두 동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산전자공학부 04학번 졸업생으로 지금은 모 대학 부속 연구소에서 연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B. 안녕하세요? 생명공학부 05학번 졸업생입니다. 현재는 한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기부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첫 열매를 알게 된 정확한 계기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1학년 때부터 첫 열매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 후 어느 시점에선가 잊고 지냈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 첫 월급을 받을 즈

음이 되어서 한동대와 첫 열매가 다시금 기억이 납니다.

B. 첫 월급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은 친구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 본인은 당시에 몰라서 못한 게 아쉬웠다고 전했었죠.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듣고 싶습니다.

A. 잊고 있었다가 다시 기억난 한동은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했어요. 한동에서 배우고 생활하며 꿈꾸던 삶과 현재의 삶의 괴리감 속에서 스스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십일조를 내면서, 그 십 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머지 9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쓰이기를 함께 기도하잖아요. 첫 열매 기부를 계기로 직장에서의 삶 또한 월급 벌이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한동에서 배웠던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한 것 같습니다.

B. 제가 나중에 첫 열매를 후원하게 된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된 곳이 한동이었고, 그 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



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한동대를 생각하고 또 자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변질되지 않은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속화의 풍파 속에서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는 살아있기에 느끼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사고 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모든 한동인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B. 취업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후배들 중에는 세상이 한동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민하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서류에서부터 떨어지기만 할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한동에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남들보다 빠른 속도(대기업, 연봉, 승진)가 아니라 남다른 방향(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B 동문은 “더 잘나가고 더 높은 대학이 아니라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른 대학으로 서길 바라며 지금처럼 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동대학교 되기를 소망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돈을 버는 그 순간 생각났다는 하나님의 대학.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학교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동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한동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무

후원자분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동에서 직접 기르고 재배한 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이 잘 되었습니다. 후원의 정성과 사랑의 기도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다 작으나마 감사의 표시로 후원자분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한동의 무. 작년 11월 약 1800여 명의 후원자분들에게 보내드린 무는 잘 받으셨나요?

수확량이 부족하여 모두에게 보내 드리지 못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사실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 직접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

지 못하는 죄송함만 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후원자분들의 정성과 사랑의 씨앗으로 한동을 통해 결실을 이루기를,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토양에 씨를 뿌리는 한동인들이 무처럼 쭉쭉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문자로 만나요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대외협력팀에서는 '문자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개인정보 변경은 물론 증액후원이나 캠페인 참여 등의 간편한 후원 참여, 그리고 응원메시지나 기도제목까지 편하게 문자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갈대상자, 지금 바로 문자로 기도제목을 보내주세요. 한동대학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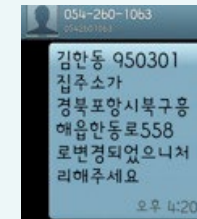
참여방법

- ①수신번호에 0542601063 을 적어주세요.
- ②기도제목이나 후원관련 요청사항을 문자로 남깁니다.
(후원관련 요청사항은 본인확인을 위해 성함과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 ③대외협력팀의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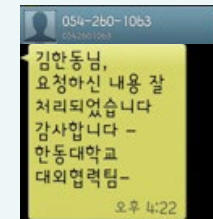
1.수신번호



2.요청사항



3.확인문자 수신



주의사항

- ①단문(띄어쓰기 포함해서 한글40자, 영어나 숫자 80자)만 가능
- ②위 기준을 넘어 장문의 문의와 변경사항의 경우, 여러 개의 단문을 보내야합니다. 장문으로 보낼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③문자발송비용은 20원으로 발신자부담입니다.
(단문 기준과 문자발송비 기준은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④후원정보 변경시 성함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3. 7. 1 ~ 2013. 12. 31 신규 후원자 (신규 후원자 443명, 익명 후원자 1명)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강기배	김경숙	김봉남	김이슬 ⁽⁸⁷⁾	김현기	박미선	배다휘	신성자	오희한	이대현	이예은	이재영	임한결	정주원	조영남	최선웅	하원섭	황은섭
강봉수	김경엽	김상률	김이슬 ⁽⁹⁴⁾	김형룡	박민	배병오	신영순	우상균	이미옥	이예찬	이철환	임현순	정준기	조용애	최성희	하윤석	황준태
강성학	김광미	김선화	김익진	김형준	박보하	배영희	신원식	우상흠	이병인	이용창	이한빈	임혜경	정지혜	조은길	최소연	하진실	
강신익	김광윤	김성	김자경	김혜선	박상진	백경숙	신재권	우시찬	이봉주	이용한	이한술	임호일	정진호	조은일	최영봉	한경희	
강예슬	김근현	김성규	김재익	김혜영	박선옥	백승연	신지혜	우은경	이부현	이우영	이해석	장경근	정찬웅	조은혜	최예빈	한단비	
강이든	김기혁	김성민	김재환	김혜정	박세현	백종학	신철순	원찬희	이상렬	이우용	이항연	장서림	정햇님	조준형	최오순	한만후	
강찬구	김도현 ⁽⁶⁷⁾	김성자	김정순	김호중	박소영	백지원	신후남	위성일	이상재	이윤아 ⁽⁹⁴⁾	이현식	장선남	정현석	조찬우	최용훈	한모음	
강현아	김도현 ⁽⁸⁸⁾	김수빈	김정호	김홍준	박수근	부상호	심하영	유미열	이상홍	이윤아 ⁽⁹⁴⁾	이현재	장수정	정현주	조하윤	최은서	한성인	
강현희	김도현 ⁽⁹⁵⁾	김순자	김종민	김효경	박수연	사공국	안경호	유은아	이서영	이장희	이현주	장수진	정혜경	조항록	최은진	한승수	
강희길	김도형	김승세	김주안	김효진	박신현	서명석	안태현	유종길	이석근	이재옥	이형선	장해울	정혜민	주다현	최재충	한영주	
강희연	김동국	김승우	김주화	나강현	박영광	서영숙	안하선	유충현	이선주	이재혁	이혜미	전대일	정희복	주순영	최종규	한영훈	
고다은	김동균	김신혜	김주희	나종완	박예진	서영준	양길현	유혁재	이성희	이재호	이혜주	전영서	제현미	지미정	최진구	한진아	
고은정	김동현	김연희	김준우	남현정	박옥례	서영혁	양명희	윤기희	이수민	이정희	이화순	전예은	제홍태	차명화	최재옥	한현숙	
고정모	김동호	김영국	김지민	노원석	박옥선	서인하	양수현	윤미화	이순옥	이종완	임동원	전용덕	조다슬	차상수	최필주	허경희	
공영진	김마리아	김영우	김지은	노주석	박옥순	서형균	양영신	윤성관	이슬기	이주혜	임만수	전하영	조복준	차영주	최하은	허상녕	
곽경선	김명희	김영은	김지혜	도명옥	박은유	설순여	양재식	윤성환	이승훈	이준석	임병옥	정상령	조봉호	차현숙	추연국	허윤선	
구덕호	김문경	김영조	김지호	류석균	박용태	성현모	엄영진	윤영준	이시은	이준희	임석민	정성삼	조석재	차형석	표동현	홍석천	
구아름	김미경	김예나	김진경	류수정	박원곤	손승현	엄예은	윤예은	이열진	이지영	임영만	정예훈	조선우	최귀조	피성훈	홍승표	
권경민	김미란	김예원	김진기	명지영	박은주	손진경	엄현진	윤용현	이영숙	이지홍	임재영	정요한	조수인	최도현	하민호	황규빈	
권경옥	김미령	김예은	김창립	문미란	박일광	송선희	염병철	윤익중	이영진	이찬송	임종식	정유창	조양환	최병대	하보라	황나라	
권기영	김미주	김외경	김천희	문영진	박재식	송승현	예은경	윤재원	이영춘	이창우	임창규	정자희	조언심	최병도	하옥근	황병철	
권도형	김민경	김용진	김춘배	문혁은	박종민	송은총	오남숙	윤정은									
권옥희	김민주	김유근	김태준	문현기	박종순	송창익	오성훈	이경리									
권용각	김민지	김윤명	김태형	민금채	박찬옥	송하은	오애림	이고은									
권정숙	김민형	김은성	김태홍	민명애	박춘길	송형석	오윤진	이규민									
권정엽	김병수	김은하	김태환	박경희	방인석	신귀현	오준열	이규희									
길호재	김병용	김은혜	김하민	박대홍	배광모	신병호	오형빈	이기쁨									
김가나	김복희	김의숙	김현주	박미경	배다인	신서일	오형선	이기원									
									한동교수협의회	(재)케이티문화재단	빛소망교회				Regent University		
									한동해군장학회	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서천벤엘교회				ETS		
									케이티텔레캅(주)	아프로에프지장학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Cordell P. Schulten		
									한국경력역량인증(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하리교회						
									법무법인 루츠알레	창신고등학교	헤세드카페						
									(주)핸디엄	대구동산교회	아당리외식공간						

후원안내

갈대상자(일반기부금)

하나님께서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엮이기를 소망합니다.

*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보아스(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낮선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룓.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이상)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시요.
*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첫열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월급 기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러하였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및 보아스 기부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후원가입

후원가입·정보변경·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한동대학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소득의 100%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 054-260-1063~7
팩스 : 054-260-1069
E-mail : sarang@handong.edu
<http://sarang.handong.edu>

미국 LA.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Cornerstone Church 내 위치)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후원자님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사업에 더욱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후원계좌 변경 안내

(2014. 3. 1 시행)

사랑하는 후원자님,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한동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한동대학교와 학생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대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뢰을 말씀은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이 2014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갈대상자 기부금, 보아스 기부금 등 일반기부금 계좌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CMS(자동이체) :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 변경됩니다.
2. 지로 : 변경된 법인명의로 지로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3. 무통장입금 :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계좌

하나은행 910-910002-55405 (예금주 :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국민은행 640437-04-001597 (예금주 :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하나은행 910-910002-57705 (예금주 :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한동대학교 후원팀(054-260-1065)
또는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054-260-1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일

(학)한동대학교	이사장	김 범 일
한동대학교	총 장	장 순 흥
한동글로벌후원회	회 장	김 영 길



sarang.handong.edu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